

상월선원 천리순례...새벽길 온수건과 차는 누가 준비했을까?

박준상 기자 | 입력 2021.10.10 07:45 | 수정 2021.10.10 08:59 | 댓글 0

가 가



김해 성조암에서 매일 새벽 1시 따뜻한 수건과 옷차를 준비해 사부대중에게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

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의 만행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, 순례 여정을 응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깊은 불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
김해 성조암은 천리순례단의 18일 걷기 일정 동안 매일 새벽 따뜻한 수건과 옷차를 나눠주면서 순례단의 여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
[김태남(다반향) / 경남 김해]

"(생업 때문에) 여기 동참을 같이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요. 밤에 3시간 밖에 못하지만 이렇게 20일 동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."

성조암 신도 김사희 씨는 제대로 씻지 못하는 순례단을 위해 새벽 1시부터 수건을 삶고 차를 끓인다면서 "순례단과 인연이 돼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

또, 사찰 안에서만 봉사를 지원하다가 처음 봉사 현장에 나온 심순금 씨는 "스님들을 보기 위해 오늘 하루만 올라 왔다"며 "큰 스님들을 뵈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"이라고 밝혔습니다.

최신뉴스

- 불교 | 불교 중립 광주 정광중, '로터스관' 개관
- 문화·스포츠 | 한·중 도시·관광 교류 활성화 다...
- 정치 | 문대통령 "한국,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...공...
- 정치 | 문 대통령, 공수처 검사 8명 임명만 재가.....
- 전국 | '선을 넘다'...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 내...

포토뉴스



인기뉴스

- 1 **우상호 "故 노태우, 공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역사**
- 2 **부산, 윤석열-홍준표 지지 선언 대결 속... '줄세우**
- 3 **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'국가장' 으로 ... 정재계**
- 4 **[코로나19]부산 코로나 19 신규 확진 49명**
- 5 **[코로나19]접종완료자 총 3천670만9천777명**
- 6 **깊어가는 가을, 도심공원에서 코로나이후 일상회**



순례단이 아침 공양지에 도착하기 전 수건과 옷차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 성조암 자원봉사자들



따뜻한 수건과 옷차로 만행의 노고를 덜어내는 스님들

8 부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오늘부터



BBS 칼럼



전경윤의 '세상살이'



전영신의 '시선'



신두식의 '공감노트'



배재수의 '크로키'



이현구의 '스윗 스팟'



선임기자 칼럼

월 1만원 이상,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

만공회

가입문의 **1855-3000**

ARS 후원 **060-800-8000**
(한 통화 5천원)



박준상 기자 tree@bbsi.co.kr

[다른기사 보기](#)

저작권자 ©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



추천
1



반대
0

당신만 안 본 뉴스

강원 초.중.고 전교생에 10만원 상당 '슬기로운 ...'
"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" 법제화 시동
윤석열 '개사과' 촬영장소 논란...해명 석연치 ...
강석호 "김종인,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생각 바...



BBS NEWS

상월선원 천리순례...새벽길 온수건과 차는 누가 준비했을까?



가 가



기사 댓글 0



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권리침해,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.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.

0 / 400

주요기사



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,
'로터스관' 개관



한-중 도시·관광 교류
활성화 다짐...2021 한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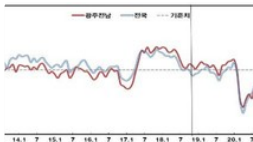
문대통령 "한국, 글로벌
백신생산 허브...공평신



문 대통령, 공수처 검사
8명 임명안 재가...내일



'선을 넘다'...제 12회 광
주 여성영화제 내달



광주전남 소비심리 2개
월째 상승...전달 대비



매체소개 | 기사제보 | 광고문의 | 이용약관 | 개인정보처리방침 | 청소년보호정책 | 저작권보호정책 |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BBS불교방송(재)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(다보빌딩) | 대표전화 : 02-705-5114 | 팩스 : 02-705-5229 | 청소년보호책임자 : 배재수
 제호 : BBS NEWS | 등록번호 : 서울 아 01259 | 등록일 : 2010-06-03 | 발행일 : 2001-09-01
 발행인 : 박형수(중하) | 편집인 : 전경윤

BBS NEWS 모든 콘텐츠(영상, 기사, 사진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 전재와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
 Copyright © 2021 BBS NEWS. All rights reserved. mail to webmaster@bbsi.co.kr

POWERED BY NE